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 진단이다. 국내 학계를 비롯해 금융·연구기관·기업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9년 전으로 후퇴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경제의 중추인 기아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가 연장됐지만 면제권이 아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불황은 타이어 업계 불황으로 이어진다.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금호타이어로서는 짝 잡을 맞았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역시 적자를 기록, 9분기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치인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된 금호

노사 화합만이 살길이다

타이어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현재 내수 시장이 금호타이어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마제스티9 등 프리미엄 타이어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와 신제품 출시 등으로 지난해 내수 타이어 RE(교체용) 시장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내수시장 점유율 신장과 소비자 신뢰 회복등을 통해 조식스럽게 2분기 흑자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흑자 위한 조직원 협조 절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화합’이 절실하다.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정상화를 향해 뛰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성으로 분류되는 황용필(대표 지회장)·강석호(극성 지회장) 후보를 새 집행부로 선출해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들 집행부는 당사 차측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데 이미 공약으로 ‘특별 합의서 전면 재검토’ ‘광주공장 이전 반대’ 등을 내건 만큼 앞으로 노사 관계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4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특별 합의’를 통해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되면서 “2017년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실상 임금 동결과 무파업 선언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관계는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고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새 집행부는 공약으로 특별합의서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단체교섭, 통상임금 산정,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쌍용차에서는 지난해 2009년 경영 악화로 인한 대규모 칼바람에 맞서 노동조합이 옥쇄 파업에 돌입, 국내 자동차 노사 분류의 한 획을 그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쌍용차 노사는 9년째 무분규를 이어오며 ‘연례 행사’로 파업하는 다른 차 업계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사가 벼랑 끝 대치의 경험을 통해 ‘화합’만이 살길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때 공장 가동률 14%까지 추락했던 쌍용차는 지난 3월에 내수 판매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노사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현재 노사 간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르노삼성엔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위기를 ‘인식’하고 회피 대신 ‘혁신’을 단행한 가운데 노사 협력이 있었던 기업은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몰락한다는 것은 GM, 도요타, 쌍용차 등 국내의 기업들의 위기 상황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강성 노조 투자 유치 걸림돌

광주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곳이다. 4년 연속 투자 금액이 줄면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단 1달러도 유치하지 못했다. 지역 경제는 노사관계 불확실성과 함께 기술력과 연구 인력 부족 등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강성 노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 유치조차 요원할 것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한 목소리다.

노사가 손을 맞잡으면 공생의 길을 열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못지 않으면 죽는다. 못지않고 흠여지면 죽는다”라고 했다. 금호타이어의 전진과 경영 정상화는 오로지 노사 화합에 달려 있다. ‘올 오아 나방’(All or Nothing)의 이판 사판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쌍용차 노사가 10년 걸려 깨달은 ‘화합’의 교훈을 금호타이어는 지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시사각각으로 변화하는 냉엄한 경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lion@kwangju.co.kr

社說

한빛원전 가동 중지 사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빛원전 1호기가 위험 상황이 계속돼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12시간 동안이나 가동된 사실이 드러났다. 6개월간의 정기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그제 한빛 원전 1호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1호기의 열 출력 급등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이었다. 제어봉의 제어 능력 측정 시험 중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원전 측은 이날 밤 10시경에 1호기 가동을 수동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추어야 하는데 장장 12시간 동안이나 가동을 계속해 심각한 위험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당시 제어봉을 조작했던 직원은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986년 가동을 시작한 한빛 원전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원전 측은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발도 갈 뻔했던 사고’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의 조치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동 중단이 지연되는 동안 양측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고의 지연이나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빛 원전에서는 무수한 하자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원전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해 불신을 키웠다. 이번 사건 만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 곳곳의 친일 잔재 청산 빠를수록 좋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 1차 조사 결과 전남 지역 내 각급 학교에서 친일 잔재로 보이는 대상물 115건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기리고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차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합평의 한 고등학교와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었다. 일제 총헌탑과 공덕비 등을 모방한 석물(石物)이 존치되고 있는 학교도 모두 33곳에 달했다.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학교는 18곳이었으며, 64개 학교의 생활 규정은 ‘불운’ ‘백자동맹’ ‘동맹휴학’ 등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교문 앞 공덕비처럼 학교

인근 등 교외에 존치된 친일잔재도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 8200만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교내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조사를 마치고 11월 청산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청산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했다. 친일 잔재 청산은 국민의 80%가 필요성을 느낀다 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학교 내의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역사 인식을 갖춘 민중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친일 잔재 청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기고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 감사위원

중관촌(中關村)은 중국의 실리론 벨리로 불리는 첨단 기술 개발구이다. 공식 명칭은 ‘배이징시 신기술 산업 개발 시험구’·벤처 기업과 중국 IT산업 창업 열풍의 본거지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회사 ‘텐센트’ 등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현재도 탄생하고 있다. 면적만 해도 서울시의 80%에 달하며 3만 여개의 기업과 40여 대학 캠퍼스, 200여 개의 연구소가 모여 있는 초대형 산학 협력 지구이다.

1992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서 기업 경영과 창업의 주체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간 뒤, 중국은 하루 평균 1만 6500개의 기업을 잉태하는 역동적인 나라로 탈바꿈했고, 중관촌은 그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노웨이(Z-InnoWay)’라고 불리

중관촌(中關村)에서 바라본 중국

는 200미터 남짓한 규모의 창업 거리는 창업 보육, 투자 기관이 밀집된 중관촌 창업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직접 방문해 창업의 중요성과 성장 정책(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설파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방문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방중 시 중관촌을 방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인 ‘KIC China’가 위치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관촌의 뜨거운 창업 열기는 KIC 이상은 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창업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관촌의 독특한 창업 문화인 처우 카페, 3W 카페, 빙고 카페 등 창업 카페는 창업자, 개발자, 투자자가 모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투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3W 카페에 들어서니 벽면은 사업 설명회 일정, 개발자나 엔지니어, 동업자 모집 공고 등으로 빼곡했다. 중관촌에는 이러한 창업 카페 외에도 약 100여 개의 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과 투자 기관이 입주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큐베이징하고 있었다.

중국의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된 동력에 대해 이상은 센터장은 중국의 자본 규모와 넓은 시장, 그리고 후진타오와 시진핑 주석 등을 배출한 칭화대와 북경대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 등을 들었다. 칭화대를 방문해 직접 만나본 교수들은 칭화대 발전 요인에 대해 대규모 투자, 고액을 주고 데려온 실력 있는 해외 유학 교수, 산업계의 지원 등을 꼽았다. 여기서 배출되는 창업 인재들은 대학의 체계적 지원 제도와 실패 후에도 부담 없이 재기가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에 성공한 이후에는 후대를 위한 재투자에 나서 창업, 육성, 성장, 재투자에 이르는 선순환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단돈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기업 등록 소요시간을 평균 3일로 단축시켰다. 이렇게 하여 최근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

업) 수는 82개(우리나라 6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309개)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다수는 중관촌 기반 기업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우리는 중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꿈을 좇아 창업에 도전하는 중국 청년들과는 달리, 우리 청년들은 안정성만을 좇아 고시촌 등에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아직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패는 그들에게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꿈과 열정, 도전정신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가 공시생의 천국이 아닌 ‘창업의 천국’이 되어야 미래가 있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과 지자체가 추진 중인 에너지 벨리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에너지 신산업 위주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인한전공대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도전 정신으로 창업 열풍을 일으키고 일 자리를 창출시켜 광주·전남 지역에 또 하나의 중관촌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은펜칼럼

노무현의 꿈과 광산구 ‘들녘 아파트 지도’



류동훈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정책위원장

5월 23일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시민들은 봉하 마을을 찾아 노 대통령이 꾸었던 꿈에 대해 생각하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 최근 ‘물의 기억’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다큐멘터리 방식인 이 영화는 노 대통령이 고향 김해 봉하 마을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물을 살려서 생태계와 농촌을 살리려고 했던 노력과 실제로 살아남 들녘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생명들의 움직임을 밀착 카메라로 포착해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친환경 생태 농업인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릴 때 개구리 잡고, 가재 잡던 마을을 복원시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영화에서는 법씨가 싹을 틔우고, 우렁이가 잡초를 뜯어먹으며 알을 낳고, 잠자리, 사마귀가 생태계에서 어울려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조제가 뿌려지는 논두렁에서 생명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생생한 영상으로 보여주며 감동과 가슴 먹먹한 아픔을 선물해 준다.

고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 제조제와 농약으로 들녘에서는 개구리와 메뚜기가 사라지고, 친환경 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민들은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그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다. 농민들을 만나 보면 친환경 농법이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힘든 것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지만, 생활 속에서 각인이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방법으로 도농 복합 도

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들녘 아파트 지도’ 사업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든 것이다. 광산구는 아파트 단지를 낀 도시동(洞) 16개와 농촌동 5개가 공존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농촌 들녘이 10분 이내 거리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보는 농사 체험을 쉽게 해 볼 수 있다. 단순한 체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배 과정을 도시민들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지속 가능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사로 짓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직접 참여하는 뒷밭과 텃논도 가능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사로 짓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시민들의 참여와 계약 재배로 진행되는 도농 교류 사업을 ‘들녘 아파트 지도’라는 방식으로 발전

시켜 보자는 것이다.

광산구의 아파트 공동체들이 조직적으로 광산구 들녘의 논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와 체험을 통해 생산 유통하고, 계약 재배되는 논밭에는 그 아파트의 이름과 사진, 주민들의 사진도 함께 넣어 논두렁에 꽃밭을 크게 세워 놓는 것이다.

길을 지나가면서 누구나 그 논밭이 어느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해서 계약재배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가는 들녘 아파트 계약 농지는 지도로 표시해서 각 동사무소와 SNS를 통해 홍보물을 만들어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각 아파트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들녘에 아파트 계약 농지의 영역을 넓혀가고, 또 쉽게 광산구 농촌동의 들녘을 방문하여 농작물이 지라는 과정과 친환경 농법의 재배 과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노대통령의 마지막 꿈이 호남의 도농 복합 도시 광산에서 되살아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사례가 확산되어 가면 좋겠다.

無 等 鼓

두 살 터울의 딸과 아들이 차안에서 말다툼을 했다. 대학 1학년인 남동생이 군복무에 대해 씩 내키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복무 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냐”고 한 누나의 말이 화근이 됐다. 동생은 “그러면 니가 가지 그러”라고 반발도 응수하며 화를 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20대 젊은이들의 젠더(성별)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젠더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군복무 문제다. 얼마 전 여론 설문 조사를 보니 20대 남성

젠더 갈등

지 못한 것을 두고 ‘여경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까지 있다. 경찰이 동영상 원본을 공개하고 경찰청장이 나서 ‘계 역할을 다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라리 경찰관을 늘리라’거나 ‘여경은 세금 기생충’이라는 혐오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며칠 전 개봉한 영화 ‘결갑스’를 두고도 젠더 이슈가 불붙고 있다. 결갑스는 사누이와 올케 사이인 두 형사가 디지털 성범죄자를 쫓는 코믹 액션영화다. 한때 일부

남성들은 여경사가 남자 성범죄자를 때려잡는 ‘남혐, 페미니즘영화’라고 혹평한다. 대립동 여

경과 비교하며 영화가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비웃기도 한다. 반면 여성들은 영화를 실제 보지 않고 좌석만 예매하는 이른바 ‘영혼 보내기’ 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대립동 여경 논란을 계기로 결갑스를 응원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립동 주취자 난동은 여경이 아니라 경찰의 대응 문제가 본질이다. 영화 결갑스도 여성판 ‘투갑스’일 뿐, 그냥 여경사가 나오는 액션물로 보면 될 터인데, 젠더 갈등이러니 안타깝다.

남성들은 여경사가 남자 성범죄자를 때려잡는 ‘남혐, 페미니즘영화’라고 혹평한다. 대립동 여경과 비교하며 영화가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비웃기도 한다. 반면 여성들은 영화를 실제 보지 않고 좌석만 예매하는 이른바 ‘영혼 보내기’ 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대립동 여경 논란을 계기로 결갑스를 응원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립동 주취자 난동은 여경이 아니라 경찰의 대응 문제가 본질이다. 영화 결갑스도 여성판 ‘투갑스’일 뿐, 그냥 여경사가 나오는 액션물로 보면 될 터인데, 젠더 갈등이러니 안타깝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체육부 220-0633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